

‘국어 의식’의 개념화와 교육적 해석

고춘화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 I. 머리말
- II. 국어 의식의 개념화
 - 1. 국어 의식의 사용 맥락
 - 2. 언어 의식과 국어 의식
- III. 국어 의식의 교육내용과 해석
 - 1. 문법 교육과정과 국어 의식
 - 2. 국어 의식 관련 내용성취기준과 교육적 함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어교육의 틀 속에서 문법 교육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법교육학자들은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현재 문법 교육은 거시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적인 대안들을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법교육학은 거시적인 틀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¹

문법 교육은 국어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고 따라서 문법 교육은 인지적 영역에 한정된다는 전통적 관점은 오랜 시간 문법 교육을 제약해 왔다. 문법 교육의 논의는 이 전통적 관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문법 지식의 성격과 내용, 방법과 학습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하지만 문법 교육의 정의적 가치나 이상적인 문

1 후자는 문법 교육의 미시적인 연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비판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한 문법 교육 내용의 실체성에 대한 요구임을 알 수 있다.

법 학습자에 대한 연구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문법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문법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진다. 풍부한 논의에서 제시되는 대안적 용어들은 교육적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에 드러나게 된다. 탐구, 맥락,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등과 같은 용어들이 교육과정에 새롭게 제시되거나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맥락’의 경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용어들은 기존 의미대로 무난하게 사용되어 그 개념이 교육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또는 각 영역별로 특수하게 사용되어 혼란이 오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짧은 연구 및 실행 기간으로 인해, 용어들은 그 교육적 함의나 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새로운 교육적 적용을 위해 투입된다. 중요 개념에 대한 천착 없이 투입된 내용들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²

이 글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용어의 하나로 ‘국어 의식’을 상정하고자 한다. ‘국어 의식’은 2009, 2011 교육과정에서 문법 내용 체계의 범주적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어 의식’ 자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신명선(2008), 박형우(2012)에서 ‘맥락’의 한 요소나 ‘태도’의 한 요소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한 주제(박선희, 2009)로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문법 교육의 중요 용어로 2009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국어 의식’ 자체를 천착하여 연구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 의식’이 정의적 가치와 관련되어 국어 사랑에 대한 당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그간 문법 교육의 정의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김은성(2006) 이후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실상 개정 문법 교육 내용 체계표에서 강조하는 ‘국어 의식’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주요 용어 해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어 의식’이 ‘언어 의식’과 정확하게 같은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될지도 알 수 없다(신명선, 2008: 376).

이 글은 ‘국어 의식’의 개념화 및 교육적 해석을 통해 교육적 실현 방향을 찾고자 한다. 개념의 규정과 교육적 가치의 탐색은 문법 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는 벽돌 쌓기의 일환이다. 문법 교육의 중요 용어에 대한 개념화와 학문적 체계의 구성은 국어의 중요성,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비판적으로 제기되는 당위적, 애국적, 감상적이란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어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는지 사용 맥락을 살피고 ‘언어 의식’과의 관련성을 따져 그 의미를 개념화할 것이다. 3장에서는 2009,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의 문법 영역과 선택과정의 독서와 문법 과목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국어 의식’의 교육적 함의 및 가치를 해석할 것이다. ‘국어 의식’의 교육적 해석을 통해 문법 교육학의 학적 체계를 갖추는 바탕을 갖추고 나아가 문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학습자의 한 양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이 문법 교육에서의 인지적 가치와 정의적 가치가 통합되는 지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국어 의식의 개념화

이 장에서는 ‘국어 의식’ 개념의 중층 구조를 읽어 보고자 한다. 국어 의식을 개념화하기 위해 우선 국어 의식의 일반적 사용 맥락을 따져 기준 의미 층위를 살필 것이다. 이어서 언어 의식과 국어 의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교육적 함의들을 모색한 후 문법 교육에서 국어 의식은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1. 국어 의식의 사용 맥락

국어 의식은 각종 국어 운동이나 국어 정책, 그리고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정교하게 개념화되지는 못했으나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국어 의식이 국어 운동이나 국어 정책에서 사용된 경우와 국어학, 특히 국어학사에서 쓰인 경우, 그 의미가 미묘하게 구별되므로 그 변별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국어 의식은 일반적으로 ‘국어에 대하여 가지는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국어 운동과 관련된 논의에서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드러내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홍기삼(1977)³의 「우리 문학의 국어 의식」의 내용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 문학의 국어 의식」 중 일부(홍기삼, 1977: 118)

나의 문장이 모국어에 대한 열렬하고도 힘찬 사랑의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는 자각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 당위성의 요구 같은 것에 눈을 뜨고 있다는 쪽이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학을 위해 살아가는 시인, 작가, 그 밖의 모든 문사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말을 가장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운명이 결정지어진 언어의 도형 수(徒刑囚)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언어의 과학자들이 원리의 문제를 예기한다면 원리를 실체에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제일급의 실천자들은 문사이다. 그러므로 국어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문사들의 노력 없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교육을 통한 언어의 보급과 실용화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어의 전제적인 향상 개발, 그리고 차원 높은 상승 작용은 역시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의 적용이라 생각하지 않을

3 홍기삼(1977)은 외술회에서 ‘국어학과 국어운동’ 특집으로 구상한 『나라사랑』 제26집의 일부로 ‘국어운동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쓰인 글이다.

수 없다(밑줄 연구자).

(1)에서 홍기삼(1977)은 본문 내에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술하고 있다. 그는 국어 운동의 방향과 함께 문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모국어에 대한 사랑, 국어 운동의 방향과 언어학과 문학의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시한 글의 제목을 ‘우리 문학의 국어 의식’이라고 한 점을 보아 국어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바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하위 요소로 국어 의식을 조사한 민현식(2002)은 국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국어 정책⁴의 문제점과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바탕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민현식(2002)에서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하여 내(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으로 규정된다. 국어 의식 조사의 설문 내용 중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어 의식 조사(민현식, 2002: 84)

【문1】귀하의 모어를 포함해서, 귀하께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하시는 순서대로 써 주십시오.

【문2】귀하의 모어를 포함해서, 귀하께서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는 어

4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국어 정책의 예로 관련 법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어 기본법(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이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하시는 순서대로 써 주십시오.

【문3】 구어(보통의 대화에서 쓰는 말)로서의 “모어”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 또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조사 내용 : 국어는 아름답다, 국어는 쉽다, 국어는 밝다, 국어는 분명하다,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⁵

국어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과 국어에 대한 이미지를 묻고 있는데, 특히 국어에 대한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국어에 대한 느낌, 긍정성의 정도, 호감도 등을 묻고 있다. 이러한 설문 내용으로 보아 (2)에서 국어 의식은 태도나 가치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의식이 태도나 가치의 범주로 이해되는 경향은 적극적인 인식⁶의 차원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단순한 앎, 일차적 충위에서 앎의 단계이다. (1)

5 민현식(2002: 84), 국어 의식 조사 [문3] 설문 내용

조사내용	1.完全没有同意	2.部分同意	3.普通	4.稍微同意	5.完全同意	合计
국어는 아름답다.	15(1.9%)	27(3.4%)	203(25.4%)	263(32.9%)	291(36.4%)	799(100%)
국어는 쉽다.	50(6.3%)	242(30.3%)	247(30.8%)	153(19.1%)	108(13.5%)	799(100%)
국어는 밝다.	12(1.5%)	60(7.5%)	348(43.6%)	229(28.7%)	150(18.8%)	799(100%)
국어는 분명하다.	26(3.3%)	158(19.8%)	235(29.4%)	210(26.3%)	170(21.3%)	799(100%)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	23(2.9%)	22(2.8%)	214(26.8%)	249(31.2%)	291(36.4%)	799(100%)

6 여기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의식과 인식’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아래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이 인식은 의식보다 더 적극적인 정신 행위이다.

ㄱ. 의식03(意識)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예) 엘리트 의식/최근 들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ㄴ. 인식(認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예) 인식이 높다/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예술계에는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에서의 국어 의식은 해당 필자가 국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을 가리키고, (2)에서의 국어 의식은 설문 대상자인 화자가 국어에 대한 가지는 개략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리킨다. 즉 지금까지 논의된 국어 의식은 모국어 화자가 국어와 관련하여 가지는 다양한 생각, 심리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국어 의식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정신 작용, 즉 국어 현상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 작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어학, 그 중에서도 국어학사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ㄱ. ‘언문과 국어 의식’ 중(이상혁, 1998: 56)

국어학사에서 실학 시대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그 변화의 폭이 커서 중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기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크나큰 전란을 겪고 양명학과 실학이 새롭게 부흥되면서 당대의 사람들의 우리 말 전반에 걸친 인식 태도는 중세의 계승과 근대 지향적 성격을 다소 드러내는 새로운 양상이었다. 이러한 점을 가정하면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실학 시대의 국어학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당대 연구자들이 취했던 언어관을 ‘언문’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추해 내고 아울러 중세 국어 시기의 특성과 차별되는 국어 의식의 새로운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밑줄 연구자).

ㄴ. ‘국어 의식과 외래 학문의 영향’ 중(정경일, 2010: 226)

이 논문은 우리 선인들의 국어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준 외래 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언어는 주관적 인식물이면서 객관적 존재의 양면성을 지닌다. 객관적 존재일 때,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또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언어가 다른 수단들에 비해 갖는 구조와 기능 등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언어에 대한 의식이란 이런 고찰의 결과를 지칭한다. 언어에 대한 의식은

그것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표현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단편적 수준에 머물고 말 수도 있다(밑줄 연구자).

(3ㄱ)에서 필자는 중세 전후의 당대인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당대인들이 훈민정음(언문)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그 과정을 재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국어의식을 우리말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문자로서 언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당대인들의 문자 의식에 대해 밝히고 있다. 따라서 (3ㄱ)의 국어 의식은 단순한 가치나 태도만이 아니라 국어의 언어적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식성을 가진 용어로 볼 수 있다. (3ㄴ)은 언어의 구조 기능 등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고찰과 학문적 체계성을 살피고 있는데 이는 언어학적 인식의 의미로 국어 의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3ㄴ)에서 필자는 국어 의식의 변화를 국어학적 인식의 발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국어 의식은 전문성을 띤 인식과 안목의 의미를 함의한 것이다. 여기서의 국어 의식은 앞서 국어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생각이 국어학적 안목으로 좀 더 정교하게 전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국어 의식은 국어의 가치와 학습자의 의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이상태(1981: 175)에서는 국어교육에서 국어 의식을 일깨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어 의식이란 겨레말로 생각하고 겨레말로 문화를 드러내며 겨레말의 철학적 깊이를 탐구하는 일의 바탕이라고 하며 국어 의식의 교육적 가치를 문화적·철학적 가치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였다(고춘화, 2013: 511). 김광해(1997)에서는 문법 교육의 내용을 지식과 태도 범주로 구분한 후, 지식 범주는 우리말 알기로 그 성격을 규정한 후 국어 탐구의 경험을 핵심 내용으로 제안하고, 태도 범주는 우리말 가꾸기로 규정한 후 국어에 대한 사랑을 핵심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는 지식과 태도 범주의 출

발점으로 ‘국어 현상에 대한 의문과 관심’을 삼아 두 범주의 연관 고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국어 의식의 교육적 함의를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었음을 방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국어교육이나 문법 교육의 가치나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국어 의식의 개념화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국어 의식이 교육과정 용어로 정식으로 채택되고 진술된 것은 2009 교육과정(2007개정교육과정)이며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언어 인식에 대한 연구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국어 의식’이 특정 지식의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가 국어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와 가치 판단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태도는 국어에 대해 화자의 입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같은 1차적 반응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립된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국어 의식’은 화자 자신의 국어 생활에 대한 전반적 성찰을 통한 가치 판단을 가리키므로 메타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처럼 국어 의식이 칭하는 의미의 스펙트럼은 폭이 넓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어 의식’의 다양성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함께 역동적 언어로서 ‘국어’의 모습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 의식과 국어 의식

국어 의식의 개념은 언어 의식 또는 언어 인식과의 연관성을 통해 더 풍부하게 밝힐 수 있다. 신명선(2008: 371)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이유를 문법 의식, 국어 인식, 언어 의식, 언어 의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현장 소통력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⁷은 영국 문법 교육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으로 언어 인식으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언어 의식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살릴 수 있다. 먼저 언어 의식의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은성(2005)에서는 ‘language awareness’의 능동적 사고 작용의 측면을 살펴 ‘언어 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생각한 ‘언어 의식’의 인식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기로 하자.

(4) 언어인식(김은성, 2005: 440)

언어인식은 언어를 인식하는 행위, 더 나아가 언어를 대상화하여 탐구하고 조사하는 행위이다. 즉, 언어인식을 정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대상을 객관화하여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인식 행위로 본다.

그는 외국 문법 교육 혁신 방향의 한 방안으로 제기된 ‘언어 의식’을 그 발생 맥락과 흐름을 정리하면서 ‘언어 의식’의 문제의식을 우리 교육의 실상과 연관시켜 발전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그가 주목한 ‘언어 의식’의 고 차원적 사고 행위는 문법 교육에서 탐구 활동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신명선(2008: 371)은 언어 의식의 사고 작용과 인식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언어 인식을 ‘언어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수행하려는 태도’로 정의한다. 언어 의식의 인식성

7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 김은성, 2005: pp. 431-432 수정 인용)

ㄱ. 언어의 본질과 언어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감수성 및 의식적인 인식 (NCLE, 1985)

ㄴ.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구사할 때의 의식적인 지각과 감수성(ALA, 1996)

에 대한 강조는 영국 문법 교육의 문제의식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한다. 언어 의식 운동의 목적과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언어 의식의 목적(R.E. Asher, 1994: 1933)

1. 중등학교 10~14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민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학교생활에서 대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 관련 교수(언어 수업)를 통합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경험들 예를 들어 과학 실험, 시나 역사 수업, 외국어 수업 등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
3. 제2언어, 외국어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촉진시킨다.

국어 의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5-1)의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민시킨다는 정신이다. 국어 현상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민감성은 학생들이 문법 수업에 임할 때에 전제되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언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숙성된 이해를 위해서는 국어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과 민감성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 교육 장면에서 요구하는 인식성의 한 모습이고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의 모습인 것이다.

반면 ‘언어 의식’을 가치와 태도의 측면에서 정의내리는 논의도 있다. 원진숙(2013)에서는 언어 의식을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으로 정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국어 환경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인식적 행위에 앞서 언어 공동체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언어 양상에 대해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을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심리적 태세와 가치를 언어 의식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의 논의는 다문화 환경의 화자까지 포함한 국어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앞 절의 일반적 사용 맥락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의식’의 개념에는 두 가지 층위가 중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적 층위에서 국어 의식은 화자가 국어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과 태도, 가치 판단을 지칭하고 2차원 층위에서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언어 인식, 즉 국어 인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1차적 층위는 화자가 국어 현상에 대해 가지는 정의적 차원의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적 층위는 화자가 국어 현상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차원의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의 국어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어에 대한 탐구는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이 연계·통합되는 지점인 것이다. 따라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에는 언어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III. 국어 의식의 교육내용과 해석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은 어떤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읽는 것은 문법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해석 및 유의미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념이란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기도 하며 동시에 개념은 실재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⁸ 이 장에서는 문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의식’의 개념과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법 교육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는 ‘국어 의식’ 개념을 통한 문법 교육 읽기의 성격을 띤다.

8 나인호(2011: 29, 58)에서 수정·인용한 것이다. 그는 개념에 대한 공시적 분석을 개념이 어떤 언어적·비언어적 맥락과 관련을 맺은 채 사용되었으며 어떤 힘을 발휘했는가 등을 묻는 절차로 본다. 이는 단순히 특정 개념이 취하는 단어의 의미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개념 속에 감춰진 여러 힘의들, 그 의미 내용 및 숨은 의도, 그리고 그 개념의 기능 및 영향력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 문법 교육과정과 국어 의식

국어 의식은 2009 교육과정(2007개정교육과정)에서 기술 용어로 채택되고, 용어 해설에 국어 의식이 진술되면서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6)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변화

2009 교육과정 문법 영역		2011 교육과정 문법 영역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실제 국어 문화와 자료 - 구어 자료, 문어 자료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탐구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의 분석과 탐구• 국어 지식의 적용•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은 내용 체계가 기존의 ‘실제, 지식, 탐구, 맥락’에서 ‘실제,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로 바뀌었다. 각 영역별 해석이 다양했던 ‘맥락’ 범주가 체계 구분에서 사라지고 대신 ‘태도’ 범주가 내용 체계로 설정되었다.

(6)에서 ‘국어 의식’은 ‘맥락’ 범주의 요소로 제시되다가 ‘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로 이동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당시부터 맥락 범주의 설정은 문법 영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맥락 범주의 규정 자체가 언어 사용 영역이나 문학 영역과 달리 이루어졌다는 점, 맥락 관련 요소가 과연 교육내용이 될 수 있느냐 등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맥락 범주의 내용으로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가 제시된 사실은 문법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어 구성체로서의 국어에 관한 결과론적 지식만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관찰과 사고 과정 그 자체도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내딛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신명선(2008)은 ‘국어 의식’이 문법 지식과 탐구 과정에 작용하는 학습자의 자질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 국어 의식(신명선, 2008: 374)

‘국어 의식’이 ‘맥락’의 구성 요소로서 ‘지식’ 및 ‘탐구’ 영역과 서로 교호함을 고려하면 지식 탐구의 결과(‘지식’ 영역)와 그 과정(‘탐구’ 영역)에 개입하고 있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태도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태도’ 등은 지식 탐구의 결과와 과정에 ‘맥락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학습자들의 집합으로서의 ‘사회적 국어 의식’의 경우 개별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거나 관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좀더 ‘맥락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어 의식’ 용어 자체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 해설서의 용어 설명에만 그친 것은 ‘국어 의식’보다는 문법 내용 체계로서의 ‘맥락’ 범주 자체에 집중된 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어 의식’은 맥락 범주에서 태도 범주로 내용 범주를 옮겨 제시된다. 하지만 맥락 범주와 유사하게 태도 범주 또한 그 한계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현식 외(2011: 77)에서는 ‘태도’에 대해 ‘담화나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수반되는 정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박형우, 2012: 122). 태도 범주에는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형우(2012: 123)에서는 이 각각의 내용의 위계성과 연계성을 설명하기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흥미’는 학습자의 경험이나 기대치와 관련된 주관적인 내용인

반면, ‘가치와 중요성’의 문제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 부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흥미〈가치와 중요성〉의식과 사랑’으로 그 위계와 연계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모호하여 이들 관계는 더 세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어 의식’에 집중하여 논의함으로써 다른 요소 간의 관계도 자연히 도출될 것이라 본다.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진술된다.

(8) 국어 의식(교육과학기술부, 2008: 141)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자 하는 문법 교육은 의미를 갖는다.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의 국어 의식의 집합체를 상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 의식이 약하다.”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밀줄 연구자).

교육과정에서 정의하는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넓다. 국어에 대한 지식이라는 정의는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국어의 본질 및 특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어에 대한 지식이라는 정의를 단순히 지식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대상으로만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결과론적 지식으로 오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문법 교육에서 ‘지식’⁹은 언어 자체에 대해 서술한 명제적 지식과 언어적 근거로서의 국어 활동에 기능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을 포함한다(주세형, 2005: 257-258). 따라서 국어 의식에서의 국어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적·과정적 지식과 함께 국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9 문법 교육에서 ‘지식’에 대한 논의는 주세형(2005)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때의 지식은 인간 본질을 규정하는 특성으로서의 언어,¹⁰ 국어에 대한 기본 질문과 탐구로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문법 지식은 언어 구성체로서의 결과물로서의 지식에만 집중하여 ‘화석화’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언어 자체 현상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언어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자는 정신과 학습자의 지식 구성 과정을 복돋우는 과정으로서 탐구에 대한 관심이다. 학습자가 인간과 언어와의 관계 기원 자체에 천착한 문법 지식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근원적 문법 지식의 의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 의식과 관련된 (8)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언어 의식 중 인식적인 차원의 개념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학습

-
- 10 Asher, R. E.(ed.)(1994: 1934-1935)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언어 의식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전통적 언어 교수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언어 그 자체로서 현상에 대한 조사와 탐구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즉 인간 본질을 규정하는 특성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 질문과 도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언어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법 교육에서도 되짚어 생각할 거리인 것 같다.
- ㄱ. 인간 언어의 특별함은 무엇이고 동물의 의사소통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 ㄴ. 아기들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이 과정이 학교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 ㄷ. 우리의 언어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언어는 변하는가?
 - ㄹ. 입말과 글말은 비교하면 어떠한가? 우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문자/쓰기 체계와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 ㅁ. 우리 사회에서 말해지는 언어들은 얼마나 많은가? 어족은 무엇인가? 그리고 방언과 지역 악센트들은 그 상황/장면에서 어떻게 적절한가?
 - ㅂ. 언어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 보편성이 존재하는가? 가장 홍미로운 대조점들은 어떤 것인가?
 - ㅅ. 영어 철자를 ‘개혁’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가?
 - ㅇ. 언어는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의 언어는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는가?

자가 자신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의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는 행위는 자신의 국어 의식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과정을 거쳐 학습자는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국어와 읽, 국어와 열의 내용 항목에 국어 의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 2009 고등학교 국어과 해설

ㄱ. (1) 국어와 읽(교육과학기술부, 2009: 154)

‘국어와 읽’ 범주는 ‘국어와 삶’, ‘국어와 규범’, ‘국어와 열’ 학습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국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국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전통적으로 문법 영역은 지식 영역이라 할 정도로 지식을 강조해 왔는데, 그런 성격이 ‘국어와 읽’에 잘 나타나 있다.

ㄴ. 국어와 열(교육과학기술부, 2009: 196-197)

‘국어와 열’은 개인의 국어 생활이 종합된 ‘국어 문화’를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통시적 안목으로 고찰하면서 바람직하면서도 풍부한 국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민족 및 국가적 차원 등 의 관점에서 국어에 담긴 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상으로 한 국어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탐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개인, 즉 ‘나’의 지식과 태도의 문제로 수렴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열’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어와 열’에 이르면 국어에 대한 탐구 국면은 ‘국어 + 사회 + 개인’으로 심화 · 확대된다. ‘국어와 열’에서 학습자들은 국어 생활 문화의 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오늘의 국어 생활 문화를 되짚어 반성하고 미래의 국어 생활 문화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국어 의식’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다.

ㄷ. 4. 교수 · 학습방법, 나. 교수 · 학습운용(교육과학기술부, 2009: 226)

(마) 국어가 가지는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여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하며 국어가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 ‘문법’을 통해서 과거의 국어를 이해하고 현재의 국어 및 미래의 국어 모습을 조망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국어 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실제 국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글을 디자인으로 삼은 옷을 비롯하여, 휴대 전화 등에서 한글 자모의 조합 특성을 응용하여 자유자재로 한글을 운용하는 사례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9ㄱ)에서 국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 지식으로서 ‘국어와 암’ 범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9ㄴ)에서는 국어 생활 문화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문화를 탐구하고 국어 문화 창조를 모색함으로써 ‘나’의 국어 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9ㄱ)과 (9ㄴ)은 국어에 대한 인식적 암을 통해 모국어 화자가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문법 교육의 학습 과정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9ㄷ)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국어 의식’을 자각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열’을 찾고 새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어 의식’의 함양은 국어에 대한 인식적 암, 모국어 화자로서의 국어 생활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국어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의 함양,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열의 형성으로 심화 · 확대됨을 교육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면 ‘국어 의식’은 중학교 국어과 교육 목표에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 의식을 높인다.’ 와 같이 진술된다. 이는 문법 영역과 관련된 교육 목표로서 여기에서 문법 교육은 암과 탐구, 국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의식의 함양은 문법 교육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학습자의 요건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문법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해 ‘국어 의식’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국어 의식’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언어 자

체, 즉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의 태도적 층위와 개인의 국어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의 인지적 층위, 그리고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열의 형성의 가치적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국어 의식 관련 내용성취기준과 교육적 함의

문법 교육 내용의 성취 기준을 통해 국어 의식의 교육적 함의를 구현해 보기로 하자. 2011 교육과정 중 국어 의식이 성취 기준 해설에 명시된 것은 공통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의 '(5) 단어의 짜임과 형성 원리' 부분과 선택 교육과정인 독서와 문법 과목의 '국어 자료의 탐구' 중 '(26) 국어의 변천' 부분이다. 먼저 공통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 7-9학년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0) 문법 영역 7-9학년 내용 성취 기준

(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국어 생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국어 단어 형성법을 먼저 이해시킨 뒤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새말들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왜 어떤 단어들은 쉽게 사라지는데 또 다른 단어들은 항구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새말들의 뜻과 사용 상황, 단어 형성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토의해 보게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형태적으로 적절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 생활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고,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 과정에 대한 자각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밑줄 연구자)

(10)에 의해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재현해 보자. 먼저 학습자는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어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 즉 단어를 보고 그 짜임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단어 인식 능력은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국어 생활 속에서 새말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스스로 깨닫고 흥미를 갖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어들의 생성과 소멸 현상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언어적 민감성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민감성과 호기심에 대한 언급은 국어 의식이 언어 인식으로서의 양상을 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가 언어적 민감성과 호기심, 즉 언어 인식을 갖추는 것은 문법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 셈이다. 이를 통해 국어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가치관이 고양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어 현상에 대한 민감성은 학습자가 단어 짜임의 같고 다른 점을 알아차리는 것, 즉 언어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은 단어 형성 원리와 국어 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언어 현상의 이유와 원리, 적용에 대한 이해는 ‘탐구와 적용’ 범주의 출발점이자 바탕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적 학습과 정서적 학습이 통합된다.

선택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문법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문법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문법 능력의 함양을 통해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국어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1)선택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ㄱ. 문법 목표

문법은 언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이며, 국어 문법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은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이다.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ㄴ. 세부 내용: 국어 자료의 탐구

(26)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국어 변천의 양상을 탐구하고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차자(借字)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주요 변천 양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국어 자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ㄷ. 5.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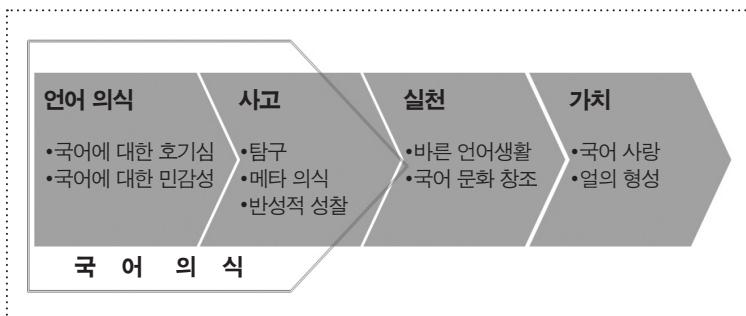
(내) 국어의 인식과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국어 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서는 국어 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밑줄 연구자).

이 성취기준에서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국어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달리 읽으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면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의 국어 의식은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추게 한다. 단순한 학습 태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 즉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의식은 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함의한다.

여기에서 국어 인식과 국어 의식의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문법 교육에서 국어 인식은 국어 현상에 대한 언어적 민감성과 호기심, 태도적 측면을 강하게 띠고, 국어 의식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소중함, 가치적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 의식은 국어 문화 창조를 위해 개인적, 사회적 모국어 화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국어 의식’의 개념과 문법 교육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다른 내용과의 관련성 속에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 교육에서 집중된 논의는 주로 언어 인식과 사고의 측면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어 의식’의 일반적 사용 맥락으로는 (12) 전체가 국어 의식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관계는 일반적이나 특수적이나는 사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12) 국어 의식의 교육적 역할



(12)의 국어 의식은 1차적으로는 언어 의식과 사고가 포함되고 2차적으로 실천과 가치까지 지향한다. 국어 의식은 문법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접근이 어떤 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것인가였다면 국어 의식에 대한 논의는 문법 교육을 통해 어떤 학습자를 길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학습자는 의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국어 의식의 역할도 이들 범주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말

사랑에 대한 의식이 강한 학습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고, 이 학습자가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관찰하고 잘못됨을 안다면 그것은 언어 의식과 사고의 충위이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태도의 충위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실천의 충위일 수도 있는 것이다.

(12)에서 선조적으로 정리한 것은 학습의 순서를 고려한 것으로 사실 이들 관계는 중층적이며 복합적이다. 하지만 국어 의식을 교실 장면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2차적인 실천과 가치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언어 의식과 사고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의식’ 개념을 통해 문법 교육을 읽고 해석해 보았다. ‘국어 의식’과 관련된 문법 교육의 유의미한 점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국어 의식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통합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국어 의식은 언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국어 현상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바탕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국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국어와 관련한 태도를 갖추고 실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얇이 삶으로 일치되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어 의식의 형성 과정은 문법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활동이며 문법적 사고 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어 의식을 갖춘 학습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국어 문법과 다른 영어 문법에 당황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국어 의식을 갖추지 못한 학습자는 당황과 불만에서 멈추게 되고, 이때 국어와 영어 문법은 이해하지 못할 암기의 대상, 학습해야만 하는 의무의 언어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국어 의식을 갖춘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언어의 모습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된다. 국어와 영어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찰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어의 특질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에게 언어는 재미있는 배움의 세상이 된다. 이처럼 국어 의식을 갖춘 학습자는 배움의 창조성,

즉 배움의 주체성¹¹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단어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 학습자는 자신의 찾은 방식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표현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단어가 소통될 수도 있다는 기대지평에 놓이게 된다. 이런 학습자는 단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말의 창조와 사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국어 의식은 학습자에게 배움의 주체성과 국어 문화 창조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국어 의식은 국어 문화와 열의 형성을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 국어 의식은 개인적 의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식으로도 이어지므로 국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국어 의식’의 형성은 국어를 통한 민족의 ‘열’을 형성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

국어 의식은 이상적 문법 학습자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국어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민감성을 가진 학습자, 국어 인식 능력을 갖추고 탐구하는 학습자, 언어를 통해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 이런 학습자의 모습은 이상적인 문법 학습자의 한 양상인 동시에 문법 교육의 한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V. 맷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교육학의 중요 용어 중 하나인 ‘국어 의식’의 개념

11 内田樹(2006/박동섭 역, 2012: 31-41)에 따르면 배움의 이유는 유용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일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인간 본질에 대한 근원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는 것을 욕망하는 것밖에 배울 수 없다는 ‘배움’ 자체의 필연성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한 해석의 자유는 학습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을 재정립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문법 교육의 유의미한 가치를 밝혀 보았다.

‘국어 의식’은 일반적으로는 화자의 국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태도, 가치를 가리킨다. 문법 교육의 장에서 ‘국어 의식’은 일반적 의미에 언어에 대한 인식적 사고 작용을 강조하는 언어 인식의 의미가 융합되어 개념화되었다. 이렇게 확장된 ‘국어 의식’의 개념은 문법 교육에서 인지적 가치와 정의적 가치를 연계·통합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민감성 촉진, 언어에 대한 인식적 사고와 탐구, 화자 자신의 국어 의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메타적 인식, 국어에 대한 가치와 열의 형성에 이어지는 국어 의식과 관련되는 논의는 문법 교육에서 상정하는 이상적 학습자의 모습을 타당하게 제시해 준다.

‘국어 의식’은 단어의 형성과 국어사 관련 내용 기준에서 명시되어 제시되었다. 단어의 형성 부분은 새로운 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국어 의식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 관련 내용에서는 국어의 역사, 특히 국어 수호의 역사와 선인들의 국어 연구 및 수호 활동을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의 가치(열)를 형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어 의식’을 중층적 구조로 해석할 때 교육적 가치를 따져 기준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법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준 언어 단위 중심의 교육 내용에 국어 의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국어 의식’의 형성은 국어를 통한 민족의 ‘열’을 형성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되고, 문법 교육의 한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3. 6. 30. 투고되었으며, 2013. 7. 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 문헌

- 고춘화(2013), 「언어관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정체성」, 『새국어교육』 제9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495-520.
- 교육부(1997-Ⅰ),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_____ (1997-Ⅱ), 『7차 고등학교 국어과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2008-Ⅰ),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_____ (2008-Ⅱ),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_____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_____ (2010),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1호.
_____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은성(2005), 「외국의 국어지식 교육 쇄신 동향」,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 429-466.
- _____ (2006),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비판적 언어인식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pp. 141-181.
- 나인호(2011),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남가영(2003), 『메타언어적 활동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 외(2001),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민현식(2002), 「한국어 의식 조사 연구」, 『한국어교육』 13집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71-105.
-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방향 공청회 자료』, 2011
국어과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 박선희(2009), 『국어 의식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기(2000),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1권 1호,
국어교육학회, 1-25.
- 박형우(2012), 「문법 교육과정의 학년군 간 위계화와 연계성 검토」, 『문법교육』 제17권,
문법교육학회, pp. 97-129.
- 신명선(2008),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pp. 357-392.
- 오현아(2011),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 『한글연구』 제29호, 한글연구학회,
pp. 217-245.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국어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국어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pp. 113-138.
- 이상태(1981), 『국어교육의 기본개념』, 한신문화사.
- _____ (2010),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 설계』, 박이정.
- 이상혁(1998), 「언문과 국어 의식」, 『국어국문학』 제121집, 국어국문학회, pp. 55-73.
- 정경일(2010), 「국어 의식과 외래 학문의 영향」, 『어문논집』 제61집, 민족어문학회, pp. 225-252.
- 주세형(2005), 「‘내용’과 ‘방법’으로서 국어지식 영역의 역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7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241-269.
- 홍기삼(1977), 「우리 문학의 국어 의식」, 『나라사랑』 제26집, 외솔회, pp. 117-122.
- Asher, R. E.(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 内田樹(2006), 『스승은 있다』, 박동섭 역(2012), 민들레.

‘국어 의식’의 개념화와 교육적 해석

고춘화

이 논문의 목적은 ‘국어 의식’의 개념화 및 해석을 통해 교육적 실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 의식’은 화자의 국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태도라는 일반적 의미에 언어에 대한 인식적 사고 작용을 강조하는 언어 인식의 의미가 융합되어 개념화되었다. ‘국어 의식’은 문법 교육에서 인지적 가치와 정의적 가치를 연계·통합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국어 의식’은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민감성 촉진, 언어에 대한 인식적 사고와 탐구, 화자 자신의 국어 의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메타적 인식, 국어에 대한 가치와 얼의 형성에 이어지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이는 문법 교육의 이상적 학습자의 모습을 상정한다. 기존 연구와 문법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해 ‘국어 의식’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1.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언어 자체, 즉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2. 개인의 국어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
3.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 얼의 형성

문법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은 단어의 형성과 국어사 관련 내용 기준에서 명시되어 제시되었다. 단어의 형성 부분은 새로운 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국어 의식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 관련 내용에서는 국어의 역사, 특히 국어 수호의 역사와 선인들의 국어 연구 및 수호 활동을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의 가치(얼)를 형성하는 데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국어 의식’을 중중적 구조로 해석할 때 교육적 가치를 따져 기준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국어 의식’의 형성은 국어를 통한 민족의 ‘얼’을 형성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이는 문법 교육의 한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어 의식, 언어 의식(언어 인식), 문법 교육, 얼, 태도

ABSTRACT

Conceptualiz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and its educational interpretation

Ko, Chun-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direction for educational realization through conceptualiz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and its educational interpretation. Through reviewing existing study and grammar education process, a meaning of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was conceptualized as follows.

1. Curiosity and inquiry spirit about language itself which is human essential characteristic, that is, ‘national language’
2. Reflective study about use of national language by individual : language meta consciousness and logical thinking
3. Attitude and view of value about ‘national language’ : formation of spirit

In the educational process of grammar,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was clearly shown and suggested on formation of words and criteria of content related to Korean language history. Part of formation of words emphasizes form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in the cognitive aspect through exploration of formation process of new words. The content related to Korean language history focuses on formation of spirit in the emotional aspect through history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history of guarding Korean languag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activity to guard Korean language by predecessors. When interpreting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as twofold struc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criteria based on educational value and to logically organize educational process. For qualitative development of

grammar edu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properly include value of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into existing educational content focusing on language unit. Formation of right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forms ‘spirit’ of national people through Korean language and becomes basis of creating Korean language culture. And this could be a goal for grammar education.

KEYWORDS the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language awareness, grammar education, sprit, attitude